

특별기획

김제보건소 한방건강교실 효과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자가 건강관리하기에 어려우신 지역주민의 건강...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한방건강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통합건강증진교육(구강, 영양, 치매, 심뇌, 건강체조 등 주2회 23주 동안 총45회 실시하여 높은 참여 및 호응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기초검진 및 골밀도 검사결과 90%(18명)가 골밀도 사전 (2.8)에서 (1.8)로 골밀도가 개선되었으며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참여자 67%이상 호전되어 참여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김제시보건소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제2기 한방프로그램은 한의약과 다양한 통합건강증진교육으로 지역주민 건강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드림스타트, '엄마와 손잡고 행복 Day' 프로그램 운영 큰 호응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드림 스타트는 지난 2일 대전광역시 소재 금사람체 협관과 오월드 등에서 부모·자녀 간 소통 및 유대관계 향상을 위한 '엄마와 손잡고 행복 Day'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드림 스타트 아동 및 보호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조손 가정 및 한 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놀아 줄 시간이 없는 가정의 부모·자녀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드림 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놀면서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유도해 가족관계 향상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진봉면 코스모스 꽃길 조성

김제시 진봉면(면장 이승엽)은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의 축제거리 연출과 새만금 주변 경관도모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들어갔다.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회원을 포함하여 진봉주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88만본의 코스모스를 이식하며 도로변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김제시에서는 161km에 이르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특히 진봉면에서 조성하는 32km 구간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지적공부 등록을 계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망새 및 새만금 바람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의 추억을 뽐낼 담갈 수 있는 정겨운 포토존을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승엽 면장은 "코스모스 식재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김제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품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는 "직원들은 오복을 만드는 선두에 있고 부안군의 맡아들"이라며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물은 100℃가 돼야 끓어 수증기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성질이 바뀐다"며 "바로 물의 임계점은 100℃"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성공의 임계점에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군민행복 위한 노력에 감사”

김종규 부안군수, 취임 2주년 기념 월례초회에서 직원들에게

김종규 부안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아 "군민행복과 지역을 발전시키고 성공의 임계점을 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부안군 7월 중 월례초회에서 김종규 군수는 이같이 밝히고 민선 6기 2년 동안 고생한 700여 직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군수는 감사 메시지에서 전실과 소와 읍면의 업무와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안군 700여 "직원들은 오복을 만드는 선두에 있고 부안군의 맡아들"이라며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물은 100℃가 돼야 끓어 수증기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성질이 바뀐다"며 "바로 물의 임계점은 100℃"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또 "우리는 민선 6기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성공의 임계점에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통·공감·동행행정과 서비스·마인드·창조경영, 오답·해답노트 등을 통해 성공의 임계점을 넘어 군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직원 여러분의 성과와 보람, 가치, 미래가 바로 부안의 성과이자 보람이고 가치이자 미래"라며 "해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부안 정면 600주년을 넘어 미래 천년 새롭게 비상하는 부안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잔여용지 분양공고

8월 8일~22일 신청 접수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85%의 민자유치율을 달성한 가운데 잔여부지에 대해 지난날 27일부터 분양공고를 실시했다.

내장산리조트는 내장산 국립공원 및 용산호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수도권에서 KTX(정읍역 하차)로 1시간30분대, 전주·광주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또한, KT&G(호텔)가 지난해 사업에 착공했고, 펜션과 여관, 상가 등 일부 부지는 이미 입주자가 선정된 상태이며, 작년 분양된 골프장 공사도 곧 착공될 예정이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정읍시 신정동, 용산동에 위치한 159만7천여㎡(약 48만평) 부지에 정읍시 422억, 한국관광공사 440억, 민자 2,367억 등 총 3천 229억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펜션,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다.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성공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고 2014년 11월 완공 후 부지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호텔, 스파파크, 콘도미니엄, 여관 및 펜션, 상가 등의 시설용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전자입찰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된다.

분양가격은 호텔의 경우 195천원/㎡, 콘도미니엄 160~220천원/㎡, 스파파크(운동오락시설) 230천원/㎡, 여관 160~230천원/㎡, 펜션 155~173천원/㎡, 상가 221~279원/㎡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중소형 시설용지를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구비되어 있다. 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8월 8일(월)~22일(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와 관광공사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운동시설인 내장산골프장이 실시설계 중으로, 각종 인허가를 거쳐 9월 중에 본격 착공해 2018년 준공계획으로 골프장이 정상운영되면 리조트 내 주변 시설의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가 높아져 내장산리조트 투자 잠재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며 "내장산리조트의 투자 잠재력 상승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양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공고/공모) 및 정읍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참고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지역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 실시

정읍농기센터와 농업과학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부터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과 협동 연구사업으로 '정읍지역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일환이다.

시와 농업과학원은 "사업 기간 내 매년 읍면동 총 500여 곳씩 모두 2천 500여곳을 대표필지로 선정하여 작물양분 관리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논과 밭, 과수, 시설 토양을 중심으로 토양 내 질소와 인산, 칼리 등을 분석하여 작물별 적정 비료량을 산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양 검정 자료는 농지

비료 절감을 위한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관리 영농지도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기술센터는 상시적으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토양검정을 해주고 있다.

농업인이 검정을 의뢰하면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으며 토양검정을 마친 필지는 인터넷 휴토타입(sd.rda.go.kr)에 접속해 지역(리 단위)을 조회하면 지번별 토양검정 결과와 시비처방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통해 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처럼 토양도 성분검사를 통해 상태를 알고 필요한 만큼 비료를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을 통해 건강한 토양환경, 안전한 농산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쫄쫄가무시증 예방교육

정읍시는 가을철 유행 감염병인 쫄쫄가무시증 발생 증가와 관련, 지난 5일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에 예방요령 등을 전달,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오경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야외 작업이나 활동시 장갑 착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예방요령 등을 소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쫄쫄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쫄쫄가무시균에 감염되며,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근육통, 두통, 피부발진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특히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입암면주민 다원시스 공장 견학

전동차 공장 신축 협조 요청

정읍시는 지난 1일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의 인근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주)다원시스 본사를 방문, 공장을 견학했다.

이날 (주)다원시스 서민호 사장과 임원진은 직접 입암면 주민들을 영접했다. 이날 일정은 (주)다원시스 홍보 동영상 시청, 주민과의 대화, 공장내부 견학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민호 사장은 "2018년 1월 전동차 생산 공장 가동을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추후 공사로 인한 소음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준공 후 전동차 완성품 제작에 따른 소음은 없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다원시스는 인력채용 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입암면 주민들을 채용하고 장학사업 등 인재양성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동차 생산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우려했던 점을 해소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서로 협력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정읍시와 전라북도, (주)다원시스(대표 박선순)가 정읍시 입암면 노령역 인근 부지에 철도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투자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및 편입부지 보상 등이 진행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특화작목으로 빵 주의 원료인 오디는 간장을 튼튼하게 한다

부안빵주 전북 귀촌박람회 건배주 선정

2년 연속 참봉 우수성 일러

부안군 대표 특화작목인 오디로 만든 부안빵주가 2년 연속 전북도 귀농귀촌박람회 건배주로 선정됐다.

부안빵주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특별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전북도 귀농귀촌박람회에서 2년 연속 공식 건배주로 선정돼 부안 참봉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부안참봉은 서해안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부안 특화작목으로 빵 주의 원

료인 오디는 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높이며 고혈압을 진정시키고 비타민 B1, B2, C 등이 풍부해 동맥경화 예방 등의 효과가 탁월한 리놀레산이 다량 함유돼 있는 웰빙 건강식품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부안빵주의 우수성을 귀농귀촌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도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안빵주 등의 홍보 및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김홍기씨 국무총리 표창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로 인정

김제시(시장 이건식) 여성정책담당 김홍기씨(사진)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것으로 전국 시·도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 및 유공자 포상, 양성평등 성과발표, 실천의 결집 순으로 성황리 개최되었다.

김홍기 김제시 여성정책담당관은 1989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부터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 보장과 여성정책 업무 등 공직자로서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문화 확산 및 감성적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받았다.

김홍기 담당관은 "예기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히 김제시 여성친화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여성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받았다.

김제시, 우회도로 공사 탄력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하고 김제시가 토지 보상비를 부담하는 흥사동~연정동 구간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896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2020년까지 11년간 흥사동~연정동 일대에 도로개설 10.32km(4차로), 입체교차로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개통될 경우 김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우회 통과함으로써 시내 교통혼잡이 해소됨은 물론, 부안(국도23호선)·정읍(국도20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지역 간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